

대학생과 물리치료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이민수·김명철*·김승균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Study on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towards Seniors with Dementia

Lee Minsoo, PT, MS · Kim Myungchul, PT, MPH* · Kim Seungkyun, PT, MS
Dept. of Physical therapy, Eulj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s aimed at offering basic data for fostering the flexible attitude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towards seniors with dementia and the clinical ability to deal with such patients without fear after employment.

Method : We investigated 181 physical therapists and 225 university students by using questionnaires from August 12 to September 19 2013. The questionnaire that used in this study was consisted by question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knowledge of dementia, attitude of dementia. The following result was obtained by using SPSS 19.0.

Result : Attitude scores for dementia, Physical therapist was 41.66. Physical Therapy student was 40.34. Non-student Department of Health was 39.22. Non-Department of Health student was affected by acquisition of dementia information and living with the elderly. Physical Therapy student had significant influence depending on the household monthly income. Non-Department of Health student had significant influence depending on student age. Physical therapist had significant influence in accordance with dementia information.

Conclusion : The study has revealed that the following factors of the therapists influence their attitudes towards dementia: their age; educational level; whether or not they have a family member with dementia; whether or not they have obtained information on dementia. Based on the finding, it is necessary to foster the flexible attitude of students towards seniors with dementia and provide education on effective clinical approaches upon physical therapy.

Key Words : dementia, physical therapist, recognition attitude

*교신저자 :

김명철 ptkmc@eulji.ac.kr, 031-740-7231

논문접수일 : 2014년 5월 22일 | 수정일 : 2014년 5월 29일 | 게재승인일 : 2014년 6월 26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인구 구조의 노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2012년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백명 당 고령인구)가 2012년에 77.9명에서 2017년에는 104.1명으로, 2026년에는 16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2년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2배를 나타내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와 전체 인구의 월평균 1인당 진료비의 격차는 2002년 2.7배에서 2012년 3.2배로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이 노인성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치매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와 관련된 문제 중 하나인 노인성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퇴행성 질병으로 연령의 증가에 비례하여 이환율이 증가하는 질병이다(김수옥, 2001).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5대 중점 목표 중 하나로 치매 유병률 증가율 경감을 설정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11).

이러한 추세에 따라, 치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나 가족 내에 치매노인이 발생하면 예기치 못할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치매노인을 돌보고 치료나 재활을 장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고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대상 노인의 삶의 질이 변할 수 있다고 본다(박수진 등, 2007).

치매노인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연구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지식과 태도 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 수준은 낮으므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념을 교육하여 더 이상 방치된 치매환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권병인,

2008).

임상가의 태도 연구 사례는 요양보호사의 사례가 있다. 신행자(2011)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요양서비스 질 전체가 다소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안현정(2012)은 치매지식이 높을수록, 치매태도가 좋을수록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고 대학생과 임상가를 함께 비교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주로 이론적으로 접하는 대학생과 상대적으로 직접 접하는 물리치료사들을 함께 비교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학과와 비보건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비교 분석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비보건계열 대학생과 물리치료학과 학생,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물리치료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더 나아가 취업 후 임상에서 치매환자를 두려움 없이 다룰 수 있는 임상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4개 대학교(3년제, 4년제)의 물리치료학과 학생 총 136명, 비보건계 학생 3,4학년 대학생 총 100명, 임상 재직 중인 물리치료사 총 185명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2. 측정방법

본 연구는 2013년 8월 12일부터 9월 17일 까지 선정된 설문요원 11명이 학교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취지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후 불성실 기재 15명을 제외하고 최종 회수인원 406명으로 설문지의 회수율은 96.44%이다.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8문항, 치매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10문항, 총 34문항으로 선행 연구된 설문내용을 조합하여 본 목적에 맞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가.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현오(1999)의 논문에서 사용한 1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타당도는 조현오(1999)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다. [치매환자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치매환자와 되도록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치매노인은 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 낫다.] 등의 부정적 정서적 태도를 나타내는 5문항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다.], [나는 일반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스컴에서 치매에 대한 최신정보나 예방법이 나오면 보게 된다.] 등의 긍정적 행동적 태도를 나타내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태도의 5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매우 그렇다]~[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5점을 주었고, 5문항의 행동적 태도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점수화하였다. 점수범위는 10~50점이었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치매에 대한 태도수준은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e 방식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치매에 대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치매에 대한 태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물리치료학과 학생 125명과 비보건계열 학생 100명, 물리치료사 181명으로 물리치료학과 학생 20~25세 이하는 108명(86.4%), 26~30세 이하는 14명(11.2%), 31~40세 이하는 3명(2.4%)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 20~25세 이하는 93명(93.0%), 26~30세 이하는 6명(6.0%), 31~40세 이하는 1명(1%)이었으며 물리치료사는 20~25세 이하는 37명(20.4%), 26~30세 이하는 63명(34.8%), 31~40세 이하는 64명(35.4%), 41세 이상은 17명(9.4%)이었다. 성별에서 물리치료학과 여학생 수는 87명(69.6%)으로 남학생 35명(28.0%)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비보건계열은 여학생 63명(63.0%), 남학생 36명(36.0%)이었고 물리치료사는 여자 101명(55.8%) 남자 61명(33.7%)이었다. 최종 학력으로는 물리치료학과 학생 중 3년제 재학은 63명(50.4%), 4년제 재학은 60명(48.0%)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 중 3년제 재학은 6명(6.0%), 4년제 재학은 92명(92.0%)이었으며, 물리치료사 중 3년제 졸업은 102명(56.4%), 4년제 졸업은 59명(32.6%),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은 16명(8.8%)이었다.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서 물리치료학과 학생 중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8명(22.4%),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95명(76.0%)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 중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7명(17.0%),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83명(83.0%)이었으며, 물리치료사 중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4명(18.8%),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46명(80.7%)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거나 치매로 사망한 가족 유무에 대해서 물리치료학과 학생 중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9명

(15.2%),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104명(83.2%)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 중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명(14.0%),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82명(82.0%)이었으며 물리치료사는

있다고 응답한 사람 19명(10.5%)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61명(89.0%)이었다(표 1).

표 1. 인구학적 특성의 빈도

단위: 명(%)

구분	특성	물리치료학과 학생	비보건계열 학생	물리치료사
나이	20~25세 미만	108(86.4)	93(93.0)	37(20.4)
	26~30세 미만	14(11.2)	6(6.0)	63(34.8)
	30대	3(2.4)	1(1)	64(35.4)
	40대 이상	0(0)	0(0)	17(9.4)
	무응답	0(0)	0(0)	0(0)
성별	남	35(28.0)	36(36.0)	61(33.7)
	여	87(69.6)	63(63.0)	101(55.8)
	무응답	3(2.4)	1(1)	19(10.5)
학력	3년제	63(50.4)	6(6.0)	102(56.4)
	4년제	60(48.0)	92(92.0)	59(32.6)
	대학원	0(0)	0(0)	16(8.8)
	무응답	2(1.6)	2(2.0)	4(2.2)
노인과의 동거 여부	있다	28(22.4)	17(17.0)	34(18.8)
	없다	95(76.0)	83(83.0)	146(80.7)
	무응답	2(1.6)	0(0)	1(0.6)
치매 가족 유무	예	19(15.2)	14(14.0)	19(10.5)
	아니오	104(83.2)	82(82.0)	161(89.0)
	무응답	2(1.6)	4(4.0)	1(0.6)

2. 치매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10문항으로 1~5는 치매에 대한 대상자의 정서적 태도로써 [매우 그렇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을 주었고, 6~10은 치매에 대한 대상자의 행동적 태도로써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배정하였다. 전반적인 태도의 평균 점수는 물리치료학과 학생 40.26±5.12점, 비보건계열 학생 39.13 ±4.86점, 물리치료사 41.56±4.95점이었다. 정서적 태도의 평균점수는 물리치료학과 학생 19.73±2.98점, 비보건계열 학생 19.31±3.47점, 물리치료사 20.33 ±3.06점이었고, 행동적 태도의 평균 점수는 물리치료학과 학생 20.54±3.30점, 비보건계열 학생 19.82 ±2.91점, 물리치료사 21.24±2.91점이었다.

정서적 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물리치료학과와 물리치료사 두 집단에서 [치매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로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4.53±0.67점이었고 물리치료사는 4.54±0.81점이었다. 비

보건계열학생에서는 [치매에 걸린 노인은 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 낫다.]로 4.12±0.86점이었다. 정서적 태도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세 집단 모두 [치매환자와 가능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로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3.36±1.06점, 비보건계열 학생은 3.29±0.99점, 물리치료사는 3.57±0.94점이었다.

행동적 태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물리치료사 두 집단에서 [치매에 대한 대책은 사회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로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4.44±0.77점이었고, 물리치료사는 4.65±0.62점이었다. 비보건계열 학생은 [치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더 생겼으면 한다.]로 4.22±0.73점이었다. 치매에 대한 행동적 태도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비보건계열 학생 두집단에서 [매스컴에 치매에 대한 최신 정보나, 예방법이 나오면 보게 된다.]로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3.54±1.08점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은 3.29±1.03점이었으며, 물리치료사는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아 보고 싶다]로 평균

3.69±1.14점이었다(표 2).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비보건계열 학생 그리고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물리치료사 간 전반적인 태도점수는 유의

하지 않았으나 비보건계열 학생과 물리치료사 간 전반적인 태도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3).

표 2. 집단 별 태도

		구분	태도점수
정서적 태도	1. 치매환자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3.74±1.11a
		비보건계열 학생	3.96±0.99
		물리치료사	3.91±1.08
	2. 치매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사회문제는 아니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4.53±0.67
		비보건계열 학생	4.1±0.93
		물리치료사	4.54±0.81
	3. 치매 환자와 가능한 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3.36±1.06
		비보건계열 학생	3.29±0.99
		물리치료사	3.57±0.94
	4. 치매에 걸린 노인은 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 낫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3.93±1.00
		비보건계열 학생	4.12±0.86
		물리치료사	4.00±0.91
	5. 가족 중 치매에 걸린다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4.18±1.00
		비보건계열 학생	3.84±1.14
		물리치료사	4.31±0.83
소 계	물리치료학과 학생	19.73±2.98	
	비보건계열 학생	19.31±3.47	
	물리치료사	20.33±3.06	
행동적 태도	6.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3.89±1.05
		비보건계열 학생	3.91±0.93
		물리치료사	3.69±1.14
	7. 나는 일반인이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4.38±0.85
		비보건계열 학생	4.19±0.75
		물리치료사	4.43±0.74
	8. 매스컴에 치매에 대한 최신 정보나, 예방법이 나오면 보게 된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3.54±1.08
		비보건계열 학생	3.29±1.03
		물리치료사	3.93±0.93
	9. 치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더 생겼으면 한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4.29±0.84
		비보건계열 학생	4.22±0.73
		물리치료사	4.54±0.73
	10. 치매에 대한 대책은 사회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치료학과 학생	4.44±0.77
		비보건계열 학생	4.21±0.78
		물리치료사	4.65±0.62
소 계	물리치료학과 학생	20.54±3.30	
	비보건계열 학생	19.82±2.91	
	물리치료사	21.24±2.91	
총계(정서적, 행동적 태도)		물리치료학과 학생	40.26±5.12
		비보건계열 학생	39.13±4.86
		물리치료사	41.56±4.95

a 평균±표준편차

표 3. 집단 간 지식과 태도 비교

구분	구분	구분	
		점수	p
물리치료학과 학생	물리치료사	40.26±5.12	0.08
	비보건계열 학생		0.24
비보건계열 학생	물리치료학과 학생	39.13±4.86	0.01**
	물리치료사		0.24
물리치료사	비보건계열 학생	41.56±4.95	0.01**
	물리치료학과 학생		0.08

^a평균±표준편차

** (p<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

일반적 특성 중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나이, 성별, 최종학력, 노인과의 동거여부, 치매를 앓고 있거나 치매로 사망한 가족 유무, 치매에 대한 정보 습득 유무 등은 전반적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성별은 정서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최종학력과 나이가 치매에 대한 행동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제 재학생이 4년제 재학생보다 행동적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p=0.03), 20~25세 미만은 31~40세 미만보다 행동적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p=0.01)(표 4).

비보건계열 학생은 나이가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20~25세 미만보다 26~30세 미만이 치매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 치매를 앓고 있거나 치매로 사망한 가족 유무가 행동적 태도에 낮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4), 치매를 앓고 있거나 사망한 가족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 보다 행동적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4)(표 4).

물리치료사는 치매정보 습득 유무에 따라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정보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치매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

표 4. 집단 간 일반적 사항에 따른 태도

특성	구분	물리치료학과 학생		비보건계 학생		물리치료사	
		태도점수	p	태도점수	p	태도점수	p
나이	20~25세 미만	39.95±5.08a	0.16	39.42±4.73	0.01*	42.76±3.91	0.40
	26~30세 미만	41.71±5.24		33.83±3.97		41.10±5.44	
	30대	44.67±4.04		44.00±0.00		41.50±4.97	
	40대 이상	0.00±0.00		0.00±0.00		40.94±5.02	
성별	남	41.63±5.53	0.06	39.28±4.42	0.85	41.11±5.81	0.39
	여	39.72±4.81		39.08±5.15		41.86±4.42	
학력	3년제	39.57±5.06	0.20	39.67±4.76	0.80	41.82±5.00	0.56
	4년제	40.75±5.06		39.14±4.93		40.95±4.71	
	대학원					41.75±5.91	
노인과의 동거여부	있다	41.32±4.50	0.21	38.94±4.78	0.86	42.88±4.72	0.08
	없다	39.94±5.32		39.28±4.68		41.23±4.98	
치매가족 유무	예	41.84±4.78	0.17	40.71±3.20	0.09	42.79±4.88	0.26
	아니오	40.07±5.15		38.93±5.16		41.44±4.96	
정보습득 유무	예	40.42±5.00	0.22	39.17±4.76	0.75	41.85±4.78	<0.01**
	아니오	38.22±6.44		38.90±5.41		37.58±5.79	

^a평균±표준편차

* (p<0.05), ** (p<0.01)

IV. 고 찰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인구 구조의 노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성 질환중 하나인 노인성 치매에 대하여 주로 이론적으로 접하는 대학생과 상대적으로 직접 접하는 물리치료사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비보건 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비교 분석 하였다.

1.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의 태도는 41.56 ± 4.95 점으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황은혜(2013)의 연구결과 보다 높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직업군으로 보아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보건계열 학생의 태도 점수는 39.13 ± 4.86 점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현오(1999)의 연구결과보다 높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평소에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알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40.26 ± 5.12 점으로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숙희(2013)의 연구결과보다 낮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같은 계열의 학생으로 배우는 과목에서 큰 차이가 없어 태도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태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세 집단 모두 ‘치매 환자와 가능한 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현오(199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실험군이 노인과의 동거여부나 치매가족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므로 치매노인을 직접적으로 접해볼 기회가 적어서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행동적 태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물리치료사 집단에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다.’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황은혜(2013)의 연구와 같고, 대학생 집단에서는 ‘매스컴에 치매에 대한 최신 정보나 예방법이 나오면 보게 된다.’

로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숙희(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것은 본 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는 응답자수가 현저히 많아 이미 접한 정보를 간과하기 쉬운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정서적 태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세 집단 모두 ‘치매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사회문제는 아니다.’였고, 행동적 태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세 집단 모두 ‘치매에 대한 대책은 사회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병인(2008)의 연구결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와 조현오(1999)의 연구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치매에 대한 대책은 사회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로 본 연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적, 행동적 태도 모두 치매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시사하고, 이는 노인문제의 사회적 홍보와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국가적 대책의 대중화를 통해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추측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나이와 학력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행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후남(2009)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적절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매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성별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현령(2006)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유병율이 높음에 따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보건계열 학생은 나이가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세 미만보다 26~30세 미만이 치매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30세 미만인 집단이 20~25세 미만인 집단에 비해 치매노인을 본 경험이 많을 것이고 그에 따라 치매노인은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라 여겨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리치료사는 치매정보 습득 유무에 따라 치매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치매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희(2002)의 연구에서 치매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는 치매 정보를 습득함에 따라 관심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의 저하를 방지하고 향상시킬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수발보협제도 등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에서 독거노인이나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를 위한 물리치료사의 수요는 점차 증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보건계열 대학생과 물리치료학과 학생,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물리치료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더 나아가 취업 후 임상에서 치매환자를 두려움 없이 다룰 수 있는 임상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성별, 나이, 학력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보건계열 학생은 나이가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집단 모두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실제로는 치매노인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매노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체험 및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에 대한 태도 점수는 물리치료사는 41.66점,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40.34점, 비보건계열 학생은 39.22점으로 물리치료사의 태도점수가 높았다.

둘째,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치매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행동적 태도에서는 최종학력($p = 0.03$)과 나이($p = 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나이에 따라 치매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치매가족 유무에 따라 행동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p = 0.04$).

넷째, 물리치료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치매에 대한 정보 습득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에 대한 관심도를 위해 치매를 체험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치매 자가 테스트를 통해 치매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SNS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봉사 활동 또는 각종 치매 인식 개선 행사 등을 통한 치매노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치매에 관한 교양 수업을 늘리고, 노인 복지에 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의 선행논문들은 치매 환자 보호자, 청소년, 일반인이 대부분이었으며 물리치료사와 대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개선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다섯째,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건강보험 통계분석 자료집.
권병인(2008). 대학생들의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충청북도 지역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구

- 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옥(2001). 치매노인의 격양행동과 수면장애에 대한 빛치료 효과. 한국간호과학회정신간호학회, 10(3), 303-316.
- 김숙희(2013). 간호학과와 사회복지과 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지각된 서비스 요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진, 박영희, 한귀정 등(2007). 운동프로그램 참여가 농촌노인의 식습관 및 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방현령(2006). 가정봉사원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보건복지가족부(2011). 2011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송영희(200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활성화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행자(2011).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요양서비스 질 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현정(201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후남(2009). 노인성 치매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 연구: 경기도 안양, 안산, 부천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현오(1999). 치매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 황은혜(2013).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